

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8 변백선 기자 | 2014.07.15 18:12



▲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여 명의 서명서가 담긴 416개 박스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옮겨져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2014년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서명 국회 전달 행사.



▲ © 변백선 기자

가족대책위 대표가 '4.16 특별법 국민서명 전달식 행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한 어린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4.16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서가 담긴 상자를 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노란 우산 위에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글귀로 적혀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각계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이 담긴 박스를 들고 국회로 향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서명 전달식'에 참석한 각계 시민들이 국회에 서명이 담긴 박스를 전달하기 위해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각계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청원' 서명용지와 자식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350만여 명의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단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1266명의 시민들의 서명 박스를 들고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동안 본청 계단 앞에서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한지 2일째 되는 날.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서명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안산 '엄마의 노란손수건' 카페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방문해 어머니들과 광화문 광장을 한바퀴 돌았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